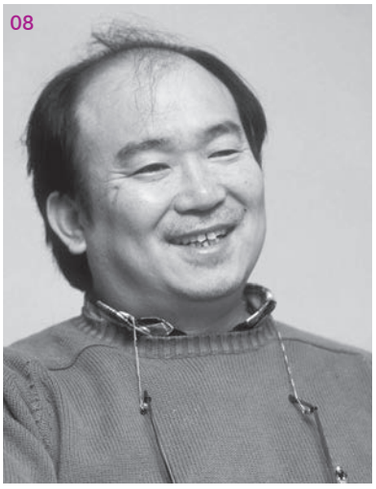
서울독립영화제와 사람들

06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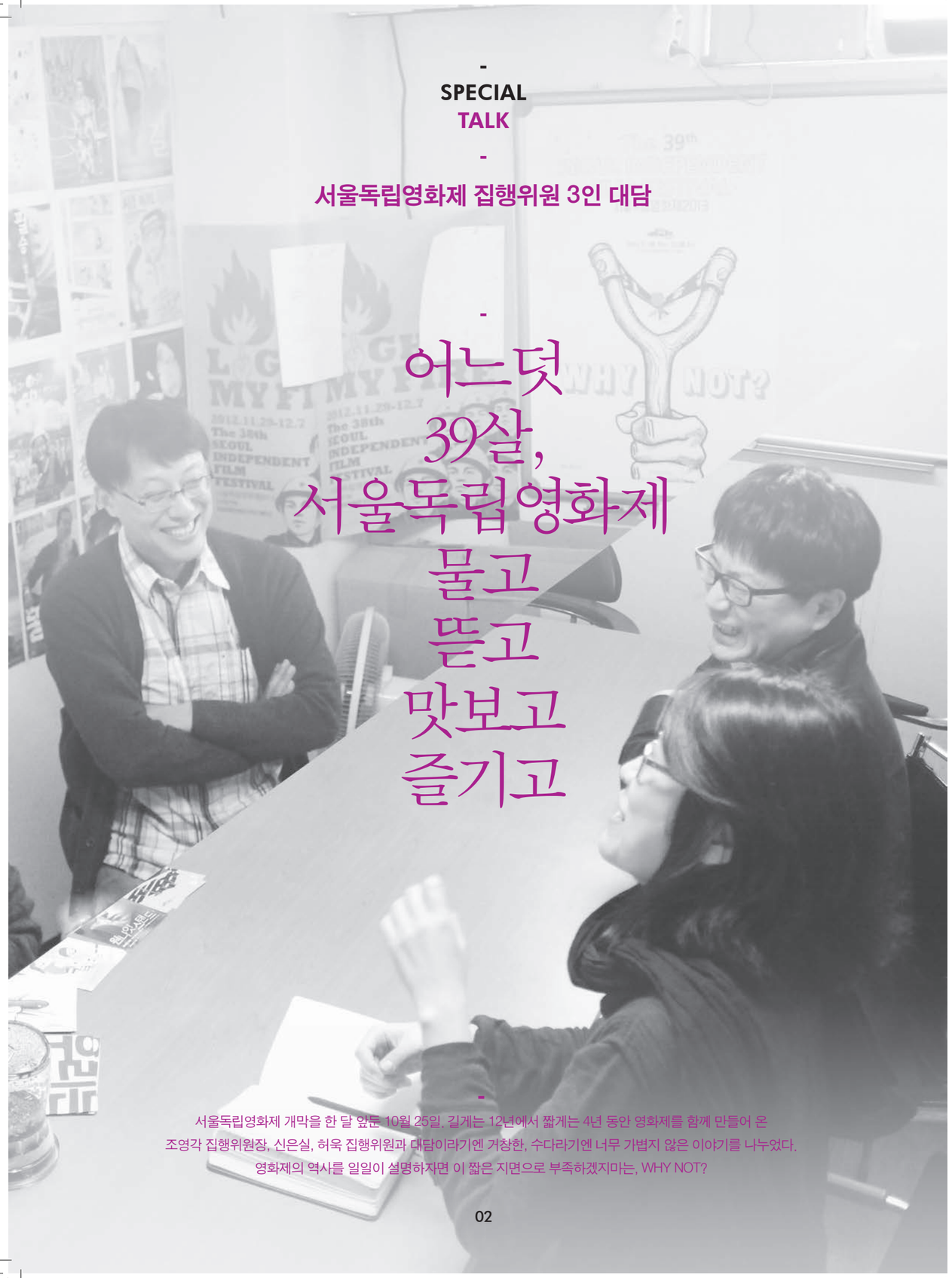
14


08

12

20

21



-

SPECIAL
TALK

-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 3인 대담

-

어느덧 39살, 서울독립영화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을 한 달 앞둔 10월 25일. 길게는 12년에서 짧게는 4년 동안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온
조영각 집행위원장, 신은실, 허욱 집행위원과 대담이라기엔 거창한, 수다라기엔 너무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제의 역사를 일일이 설명하자면 이 짧은 지면으로 부족하겠지마는, WHY NOT?

NOW(이하 N): 올해 영화제 특징과 지난 영화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봤으면 한다.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소개부터 시작하자.

조영각(이하 조) 집행위원장이다. 1999년에 한국독립단편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출발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독립영화제(이하 SIFF)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다. 아직 도망을 못 갔다.

신은실(이하 신) 2009년부터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2009~2011년엔 예심위원도 겸했다.

허욱(이하 허) 2010년부터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다. 2010년엔 해외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2012~2013년에 장편 예심을 했다.

N: SIFF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은 어떤가.

신 SIFF는 영화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식구 같은 느낌이 있다. 감독들도 소속감을 많이 느끼고 자원활동가의 참여도도 남다르다. 다른 행사로 참여하게 되거나 관객으로 와도 그들을 위한 배려가 연구와 실행이 잘되어 거의 감동이다. 그런 것들이 좋아서 지금까지 같이하고 있다. 어떤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단 다년간 쌓여서 체계적인 매뉴얼로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다. 참여할 때의 기쁨이 있다.

조 나는 오래 일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다. 처음 상영하게 된 감독 입장에서는 잘 못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까우면서도 식구 같지 않게, 영화제에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데 어렵다. 감독들과 나이 차가 벌어지는 것도 아쉽다. 영화제 끝나면 모두 형-동생이 됐는데 지금은 감독-집행위원장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경계를 허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딜레마가 있다.

허 독립영화 활동가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독립영화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처음에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 가입할 때 낯설고 폐쇄적인 인상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막상 안에 들어와 보니 가족적인 분위기가 주는 즐거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예전처럼 강한 끈보다는 넓혀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독립이라는 의미도 다르게 해석되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한국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된 것 같다.

N: 이번에도 새로운 감독들이 많이 발굴되었나.

조 그렇다. 그해 대표작이나 호평받은 작품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출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덜 알려진 영화들을 많이 선정하려 노력한다. SIFF는 올드하고 권위적이라거나 기성감독 작품들을 상영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젊은 감독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허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장르/주제를 가진 영화제가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제로서 중요하기에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N: 2009년부터 〈원 나잇 스탠드〉, 〈나 나 나 : 여배우 민낯 프로젝트〉, 〈서울연애〉 등 옴니버스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조 영화제에서 좋은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듯,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 또한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됐고, SIFF에서 주목했던 감독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서울연애〉는 젊고 에너지 있는 7명의 감독이 바라보는 청춘과 연애의 순간을 6편의 단편으로 제작했다. 성과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 이제는 외부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다음 프로젝트는 뭐가 될지, 같이 참여할 수 있을지 하는.

신 영화 제작/개봉을 하고 순회상영회인 인디피크닉 진행과 DVD도 제작한다.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지만 큰 성과들을 남겼다. 1년 내내 바쁘지만 그게 영화제에 시너지를 주기도 한다. 이번에 NOW도 발행하면서 반응이 좋다.

조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패권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이나 인디포럼보다는 규모가 크다 보니 질투와 시기도 있지 않을까 한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기업 후원도 적극적으로 받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영화로 돈을 버는 곳들이 독립영화에 기여하게 하고 그것이 다른 영화제에도 확장될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N: 독립영화제가 여럿 있는데 다른 영화제에 부러운 점은 없나.

조 인디다큐페스티발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직접 만들고 인디포럼도 작가회의가 있다. 커뮤니티가 내/외부적으로 있고 감독들에게 '우리 영화제'라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해의 집행위원이 똘똘 뭉쳐서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국제영화제와 독립영화제 중간 규모의 영화제라 감독들이 느끼는 긴장감이 있는 것 같다. 그 긴장감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허 그건 아마 프로그래머가 그해의 영화를 묶는 영화제가 아니라 경쟁 영화제이다 보니 겪는 현상인 것 같다.

조 심사위원들과 결정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상영하지 못할 때도 있다. 누군 동의했는데 누군 설득이 되지 않으면 선정하지 못한다.

신 SIFF 하면 집행위원장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 우기는 건 없다. 경쟁 영화제의 숙명 상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 작품을 상영하는 영화제와 아닌 영화제로 나뉘고, 상영하는 감독 사이에서는 상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권위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다. 시기적인 면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에도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다. 선택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절대평가를 당한 것처럼 너무 섭섭해 할 때 미안하고 민망하다. 한 해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허: 우리도 영화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입장이라기보다 올해의 영화들을 펼쳐서 보여 주는 거다. 한 해를 정리하는 쇼케이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안에서 관객과 심사위원이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갖고 보는 것이다.

집행위원 신은실

집행위원장 조영각

집행위원 허욱

N: 작품을 선정하며 감독들 보기 민망한 경우가 많았을 것 같다.

조: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발표한 적이 있다. 거기서 감독들을 만나는데 상영작으로 결정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고 일일이 당신의 영화가 어땠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보니 난감하더라. 누군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안 되면 섭섭하지 않은데 SIFF에서 안 되면 섭섭하다는 얘기도 한다. SIFF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평가받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신 SIFF만이 절대적인 자리가 아니고 각자의 영화제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선택하지 못하는 영화들은 항상 눈에 밟힌다. 일단 심사 때 만나면 감독만큼은 아니지만 일종의 자식 같은 애정이 생긴다. 그해에 선택을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작품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작업했으면 한다.

N: 슬로건은 어떻게 정하나.

허 독립영화에 대한 정체성과 당대성까지 담아야 해서 정말 어렵다. 독립영화가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어떤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조 온갖 말들을 다 조합한다. 올해의 슬로건은 'WHY NOT?'이다. 질문을 던지거나 제스처를 보여 주고 싶었고 대답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에 대한 'WHY NOT?'인지 함께 생각했으면 한다.

N: 제일 맘에 드는 슬로건은 뭔가.

조 '파고들다', 'Never Mind', 'Light My Fire' 등이 기억에 남는다. 독립영화가 대중들에게 파고들고 사회에 파고든다는 의미가 좋았다.

허 '독립영화 맛 좀 볼래' 좋았다. '독'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좋았고 '치고 달리기'도 좋았다.

N: 2010~2011년까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신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개인적 희생을 하며 영화제를 지켜 나갔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년에 비해 거의 지장 없이 영화제를 잘 치렀다. 공적 지원은 독립영화제에서 양날의 칼이고 딜레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때는 오히려 독기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도와줬다. 지금은 공적 지원이 늘었어도 실상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쓰는 운영비는 지원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스태프나 심사위원들에게 예산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그런 것들은 전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돈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허 자생할 수 있는 영화제는 어떤 형태일까 하는 논의를 많이 했다. 미국에서는 공적 자금 없이 민간 자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엔 건강한 민간 자본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공적 지원 없는 운영이 가능한가, 공적 지원을 받으며 우리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

신 더 예전 얘기도 듣고 싶다.

조 2004년에 처음 CGV에서 영화제를 했다. CGV용산이 론칭할 때였다. 일부에서는 왜 멀티플렉스에서 하느냐는 의견도 많았다. 역대 관객은 2004년을 못 넘고 있다. 아트선재에서 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 어디냐고 했던 반면, 용산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들 알고 있었다. 멀티플렉스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싶었다. 그런 와중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왔다. 프로모션을 해야 하니 영화제가 4시 이후에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쓸쓸히 나왔다. 영화 한 편에 백 편 가까운 영화가 밀린 거다.(웃음) SIFF를 하면서 독립 장편을 활성화시키자는 목표가 있었다. CJIP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고 독립 장편을 많이 소개하며 영화제 상영작이 개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독협과 SIFF가 독립 장편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았나 싶다.

N: 독립영화에 있어서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 온 SIFF가 갖는 역할이 크다.

조 내년이면 40회가 되는데 그 안에서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다. 변화해야 할 시점에 지원이 끊기며 영화제를 지키는 데 급급해 도약의 시점이 유예된 측면이 있다. 우리끼리는 행복하게 고민하면서 했지만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규모나 방향이 위축되기도 했다. 그래서 40회를 맞으며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국제영화제로 확장시킨다면 영화제 방향과 대중성을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 국내 감독들의 입지가 좁아지지는 않을지 생각한다. 예산도 더 필요할 텐데 그 안에서 영화제에 대한 외압을 잘 이겨 낼 수 있을지도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들을 개선하며 영화제의 재도약을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이다.

신 독립 장편에 기여한 바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영화들을 보면 그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된다. 개봉할 수 있는 스크린이 늘어나고 독립 장편의 편수는 늘어났지만 영화제에서의 상영 편수는 줄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약진하고 있는 반면 장편 극영화의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진 느낌이 있다. 독립 장편이 충무로 메인스트림 진입을 위한 포트폴리오처럼 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재충전과 더불어 독립영화가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미학적인 독자성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나 싶다. 그런 면에서 SIFF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허 초심으로 돌아가서 늘 그런 질문을 한다. 독립영화는 무엇인가, 한국에서의 독립영화는 무엇인가, SIFF에서의 독립영화는 무엇인가. 카운터시네마로서의 태도 자체가 독립영화에서의 의미라고 한다면 SIFF도 주류의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굴하고 선택해서 보여 주는 것이 영화제의 모습인 것 같다. 수평적 팽창은 조심스럽게 가고 수직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를 조망하고 마이크로스코프를 갖다 대며 현재의 독립영화를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다.

조 두 가지 욕망이 같이 있다. SIFF 상영작이 인디스페이스에서 개봉해 많은 관객과 만나고 영화적인 즐거움을 갖길 바라는 것과, 기존의 단편들도 드라마투르기화되고 만드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작년의 〈해운대소녀〉 대상도 상징적인 사건일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영화 미학은 무엇인가, 독립영화가 갖춰야 할 미학은 무엇인가, 〈똥파리〉 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의도가 관객들에게 다 읽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다.

신 관객성의 변화가 궁금하다. 작년의 경우 관객도 많아졌는데, 멀티플렉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세대가 바뀐 것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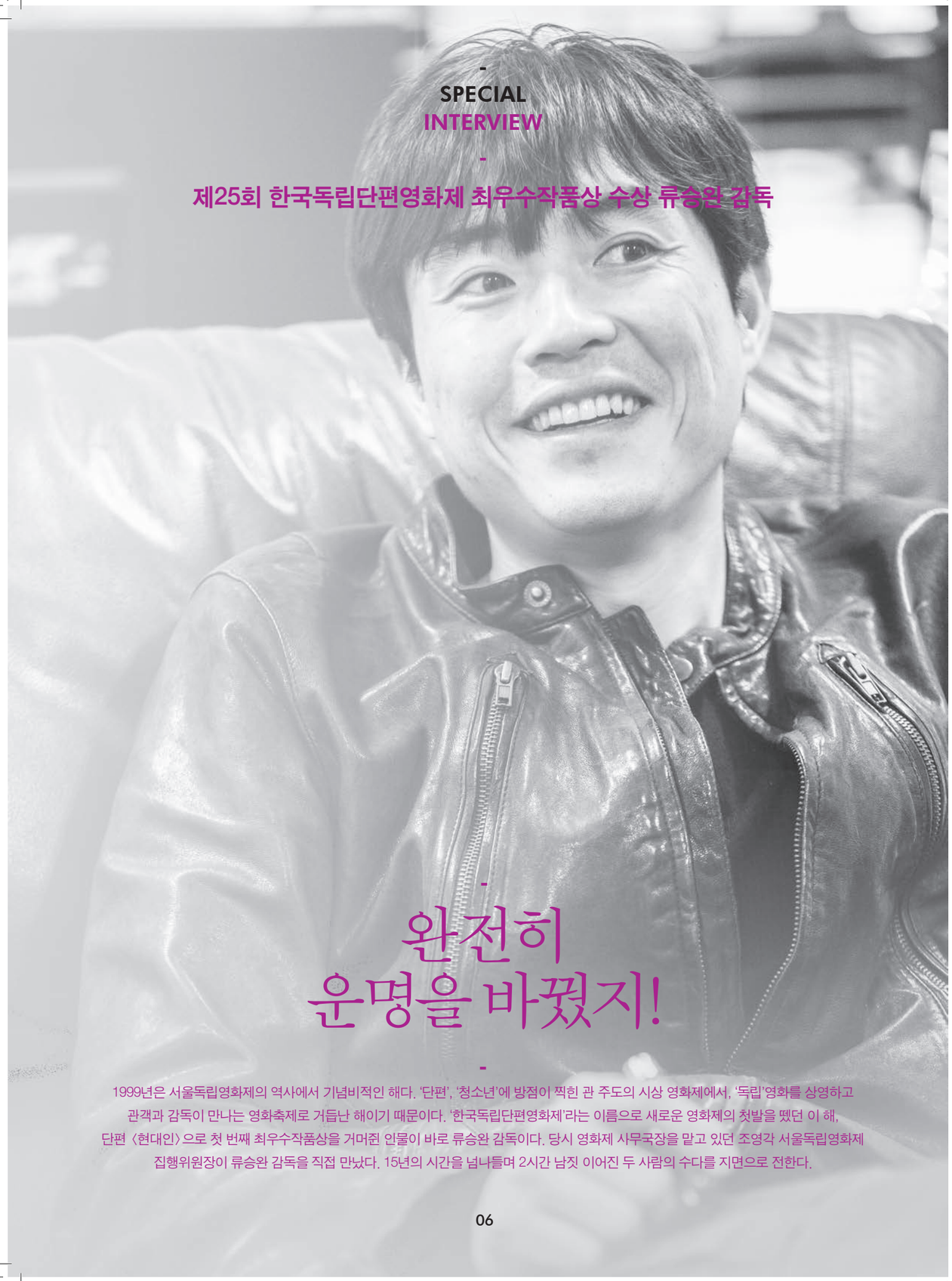
조 해마다 관객들이 바뀌는 느낌이다. 50~60%는 독립영화를 처음 보는 분들인 것 같다. SIFF가 독립영화를 보게 되는 계기는 되는데 그게 쌓여 가느냐 하는 부분에선 아쉬움이 있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매년 관객이 바뀌는 듯하다. SIFF 왔던 분들이 인디다큐페스티발이나 인디포럼에 가고 인디스페이스의 관객이 되어야 하는 건데.

허 GV에서 관객들의 질문을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부터 재기발랄한 것까지 폭이 넓다. 참여자들이 다양해지고 적극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가 불편해지는 시대이기에 다른 부가적인 것들로 관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조 독립영화든 블록버스터든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는 모두에게 같은 거다. 다만 그게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허 늘 그 자리에 있는 영화제, 늘 그 자리에 있는 극장이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진행 박현지/최민아 | 사진 김지은



SPECIAL
INTERVIEW

제25회 한국독립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수상 류승완 감독

완전히 운명을 바꿨지!

1999년은 서울독립영화제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다. '단편', '청소년'에 방점이 찍힌 관 주도의 시상 영화제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관객과 감독이 만나는 영화축제로 거듭난 해이기 때문이다. '한국독립단편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영화제의 첫발을 뗐던 이 해, 단편 〈현대인〉으로 첫 번째 최우수작품상을 거머쥔 인물이 바로 류승완 감독이다. 당시 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류승완 감독을 직접 만났다. 15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2시간 남짓 이어진 두 사람의 수다를 지면으로 전한다.

형, 오늘 인터뷰 주제가 뭐예요? 류승완에게 서울독립영화제란 무엇인가?

인생을 바꿨지! 인디포럼하고 서울독립영화제가 내 인생을 바꿨어. 서울독립영화제(그때는 '한독단'이었지)에서 〈현대인〉이 상 받고, 그다음에 장편 만들고, 개봉하고, 죽 이어졌으니까. 인디포럼은 아무데서도 안 받아 주던 내 첫 연출작을 상영했던 유일한 영화제였고.

〈번질헤드〉 말이지. 〈패싸움〉도 인디포럼에서 틀었고.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에서 〈패싸움〉 틀 때, 너 지하철 공사 다니다 시멘트 독 올라서 얼굴이 빨갛게 돼서 왔었잖아. 요즘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

내가 부잣집 아들인줄 알더라고. 〈현대인〉이 서독제 본선에 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도 승범이(류승범)랑 고구마 장사하고 있을 때였어. 다른 데서 계속 떨어지고 있던 때라 그 연락 받고 승범이가 무지 좋아했었지. 본선에서 최우수상이랑 관객상을 같이 받았잖아. 이효인 선생님 멘트도 기억나. 심사위원 결정과 관객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드문데 〈현대인〉이 두 상을 같이 받았다면서.

그때 같이 후보로 올랐던 게 〈체온〉, 〈광대버섯〉 같은 영화들이었는데, 심사위원장이던 이창동 감독이 형식적 새로움이 장르적 완성도를 넘어서지 못했다면서 〈현대인〉을 밀었지. 그땐 사실 장편에서도 액션영화를 거의 안 만들었잖아. 〈현대인〉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영화가 없었어.

그해 심사위원장이 이창동 감독이었던 것도 나한테는 행운이었지. 〈오아시스〉에 캐스팅됐던 것도 〈현대인〉 때문이었거든. 그리고 그때가 인디 진영도 개편되고 있을 때였잖아.

그전까지 독립영화가 사회비판적인 영화를 중심이다가, 차츰 장르적이고 개인적인 영화들이 나오면서 변화되던 시점이었지. 인디포럼 생기고, 한독협도 만들어지고.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영화 전체 판도도 바뀌고 있었고. 97년, 98년에 〈쉬리〉 같은 장르영화들이 덩치를 키울 때 주류영화계에서는 이게 과연 될까 불안해했었어. 그런데 6천만 원짜리 장르영화가 나오니까, 호응이 있었지. 미디어도 좋았을 때였고. 그땐 전철 타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키노'나 '씨네21' 들고 있었어.

전철 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랬겠네. CF도 찍었잖아.

무지하게 알아봤지.(웃음)

그때부터 류승완이 풀리기 시작했었지? 〈패싸움〉이 98년에 부산단편영화제에서 상 받고, 99년에 인디포럼에서 차기작 지원 프로젝트 받았고. 99년 말에 〈현대인〉이 상 받아서, 2000년 봄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완성됐고.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과 가장 기뻤던 순간이 같이 있었어. 할머니가 상 받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때 수상 소감이 할머니에 대한 거였을 거야. 할머니가 넌 왜 쌈박질하는 영화만 만드냐고 하셨는데, 내가 그런 큰 상을 받는 걸 못 보고 가셨거든. 상 받고 많이 울었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독협(독립영화협의회)에서 워크샵 같은 걸 해 주면 회섭이 형(낭희섭 대표)이 봉투에다 2만 원을 넣어 줬어. 봉투도 새 거 아니고 전화요금 고지서 같은 거 왔던 거. 그걸 할머니한테 주면, 대학 나온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봉투에 돈을 받아 온다며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어.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할머니는 잘 모르셨지.

요즘은 영화 한다고 하면 집에서 좋아해. 영화가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됐잖아. 나는 그게 문제 같아. 가끔 대학 가서 특강 같은 걸 하면, 학생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CJ 입사야. 서독제 스태프? 그건 별종들이나 하는 거고. 영화를 직업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 직업으로는 꽝이잖아. 영화감독 중에 정신병자 아닌 사람 어딨어? 나만 해도 〈베를린〉 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8kg이나 빠졌어. 박찬욱, 봉준호, 김지운 보면 있어 보이겠지. 풀이 과정 없이 해답만 보고 있는 거야. 영화 만드는 걸 경제적인 가치로 접근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 천만 영화 사이에 망한 영화가 얼마나 많아? 영화 만들고 싶어서 감독이 되려는 게 아니라, 감독이 되고 싶어서 영화 만들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현장에서 버티질 못하지. 예를 들어 현장에서 라인 안 꼬이게 잘 까는 게 얼마나 중요해? 청테이프 잘 발라야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은 자존심 상해서 못 하는 거야. 영화 전공 학생들이 영화를 제대로 안 보는 것도 문제 같아. 고전을 안 보잖아. 영화 하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시네마테크에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음악 하는 애들은 유명한 지휘자가 와서 클래식 공연하고 그러면 다 보잖아.

독립영화 시작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천만 원 가지고 영화 찍어야 하는데 〈부당거래〉나 〈올드보이〉만 보면서 나도 이렇게 찍어야지 그런다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같은 걸 봐야 하는데 말야.

예전 상황을 잘 몰라. 깐느 박(박찬욱 감독)이 〈JSA〉 하기 전에 비디오 가게 일해서 돈 모은 걸 누가 알겠냐고, 봉준호 감독도 비디오 가게 알아보고 그런 거, 누가 알아?

봉준호 감독도 비디오 가게 알아봤었어?

〈플란다스의 개〉 하기 전에. 그때 준호 형이랑 집이 같은 방향이라, 충무로에서 가끔 만나서 3호선 수서행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 중장비 자격증이나 제과제빵 자격증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고. 그때 결혼식 촬영 알바도 많이 했었잖아?

정지우 감독이랑 청년 사람들이 선수였지.

곽경택 감독은 〈친구〉 하기 전에, 결혼식장 촬영은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동영상 유서 제작 같은 걸 알아봤었어. 회갑연 때 영웅화시키는 기록물 같은 거 만드는 거나.(웃음) 이런 얘기 하면 꼰대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은 영화 찍을 수 있는 환경은 훨씬 좋아졌는데 전투력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영화 편수도 많아지고, "와, 잘 만들었네!" 하는 건 있는데, 연대의식이 없어진 것 같아. 독립영화는 어려운 게 아닌 거 같거든. 전투력과 분노가 있어야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 나만 해도 단편 찍을 때 후원 받고 그런 거 없었거든. 노가다 뛰고 해서 제작비 벌었지. 그리고, 독립영화도 제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봐. 독립영화 쪽에도 표준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독립영화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 예산 규모로만 규정하면, 대기업이 만드는 저예산 상업영화까지도 독립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배급 문제도 있고. CJ가 배급하는 영화는 독립영화냐 아니냐. 어떤 자본을 받느냐의 문제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야.

참, 영화제에 바라는 거 있나? 류 감독이 부지런한 게, 독립영화도 많이 보고 독립영화 배우들도 열심히 쓰잖아.

독립영화 진영이 감독만 소개할 게 아니라 배우와 스태프를 소개하는 에이전트 역할도 해 줘야 한다고 봐. 그리고 꼭 정치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주류영화에서는 못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 장르적으로 보자면, SF 같은 거. 〈편대단편〉이나 〈불청객〉 같은 영화, 〈2001 이매진〉 같은, 그런 영화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

인터뷰 조영각 | 정리 김은아/신미혜 | 사진 김설우

-
SPECIAL
INTERVIEW
-

서울독립영화제2003 대상 수상 김동원 감독

-

다큐, 자신의 가치관을 올인하는 것

-

2003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평단과 관객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바 있는
김동원 감독의 〈송환〉은 이후 독립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거듭 세우며 독립영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증명했다.
김동원 감독님께 들은 10년 전 그때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송환〉을 처음 상영했을 때 당시가 궁금하다.

기억이 나는 게 첫 시사회를 활력연구소에서 했다. 지금은 오재미동으로 바뀐. 그때는 극장 빌려서 시사회를 할 수도 없었고, 활력연구소에 힘을 보태 주자는 의미도 있었다. 그때 한 스무 명 왔었나.(웃음) 그땐 개봉이 드물었기 때문에 개봉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폐막작으로,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인디다큐 폐막작으로 관객 반응을 짐작할 수 있었고,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내가 받은 최고의 극찬이 "심지어 재밌다."였다.

선댄스영화제에서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하고 이후 개봉도 했다.

인디다큐와 서울독립영화제 사이에 간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선댄스영화제 프로그래머가 보고 날 초청했다. 거기서 평가를 받으면서 내가 뜨기 시작했지.(웃음) 그 이후 정신없이 바빠졌다. 개봉하자고 하고 여기저기 인터뷰했던 기억이 난다. 그전에도 〈낮은 목소리〉, 〈영매〉 등 개봉한 다큐는 몇 편 있었지만, 2004년에 아트플러스 체인이 만들어지고 첫 개봉작이 〈송환〉이었다. 내가 혜택을 받은 셈이 되었지. 와이드릴리즈로 전국 아트플러스 8개관에서 동시 상영했었다. 광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제주 갔다가 관객과의 대화 하느라고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난다. 여러 가지로 내가 운이 좋았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이 낮아졌을 때였고 송환이라는 사건도 생겨서 제작도 할 수 있었다. 관객들의 호의적인 반응도 가능했고. 사실 아무런 계획 없이 듬성듬성 찍은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필요한 장면들이 있었다. 그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었던 건 내가 스토리텔링을 잘한 것일 수도.(웃음)

공동체 상영*도 같이 했다던데.

그때 삼동이란 친구가 진행했다. 조그만 도시 홍성, 홍천도 가고, 영남대도 가고, 지방의 YMCA 같은 곳도 가고. 사실 공동체 상영은 독립영화에서는 특별한 상영 방식은 아니다. 〈상계동 올림픽〉도 그때 공동체 상영밖에 더 있었겠나.

(*공동체 상영: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관람, 상영 방식. 공동체 상영 가이드북인 〈우리 동네 극장 만들기〉에 의하면, 〈송환〉은 180회 정도의 상영회를 통해 극장 관객 수와 비슷한 2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한다.)

〈송환 2〉 제작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다.

송환 상영할 때부터 속편에 대해 질문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로 송환 이후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전향자 이야기는 부수적으로 생각했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라 언론에 잘 안 알려진 건데 2005년도 말에 송환 이야기가 있었다가 무산되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이후 북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나빠졌고, 그들에게 관심도 없고, 나이도 많아져서 갈 희망이 없어진 전향 장기수들의 이야기다. 말하자면, 못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전향 장기수분들이 몇 분 계시나?

이제 스물네 분 남아 계시는데 모두 여든 넘었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5년 후면 85세인데, 그때가 되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가능하실지도 모르겠다.

〈송환 2〉는 언제쯤 나오나? 몰라. 묻지 마.(웃음)

〈송환〉 제작 당시와 현재, 많은 변화를 느끼겠다.

지금은 다큐가 뜨는 분위기인 것 같다. 최근에는 다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큐를 영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예전에 다큐도 영화의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었다. 그전에만 해도 다큐는 방송국에서 하는 〈추적 60분〉이나 〈인간극장〉 같은 거라고 했었으니까. 예술의 한 갈래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했었다. 내가 강의 시작한 게 2000년 정도인데 그때 첫 시간에 '다큐난장'이라고 다큐에 대해 떠들어 보자며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때 나온 말이 다큐는 예술이 아니고 저널리즘이라고 했다. 영화도 다큐고 다큐도 영화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다. 근데 요새는 극영화 하는 사람들도 다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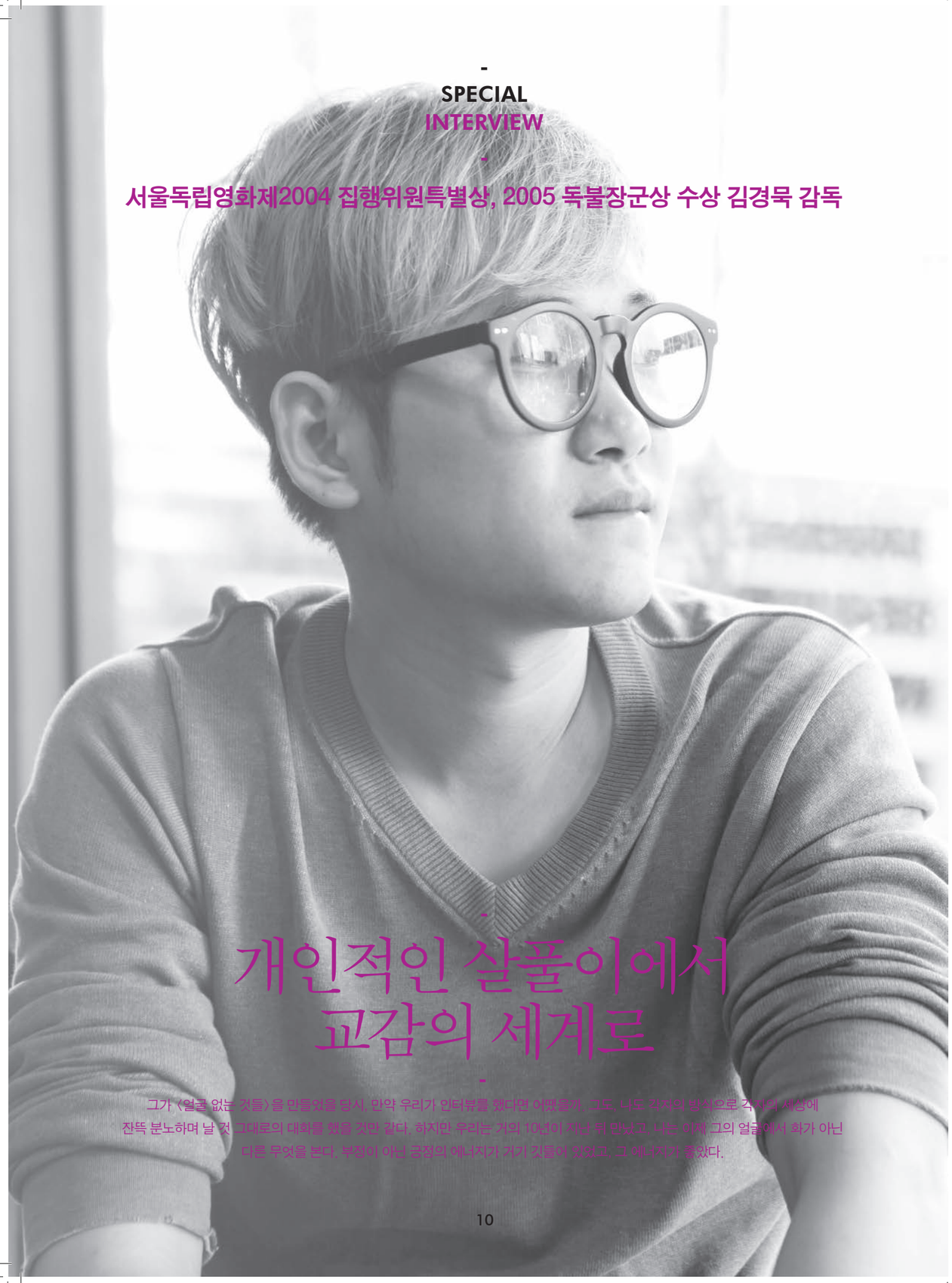
현재 제작되고 있는 다큐들을 보면 어떠한 경향을 느끼는지?

2000년대 초 새로운 작가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활발하고 한두 편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 이제는 내가 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새로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다큐'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학교다큐들은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현장보다는 사적인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많다. 이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독립다큐 감독들이 하듯이 깊숙이 뛰어들 수는 없는 것 같다. 소위 액티비즘 같은 경향의 작품들은 학교에서 나오기 힘들고, 현장을 심리적으로 멀게 느끼는 것들이 있다.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작품에 대한 관심이 앞서 있고, 현실적인 시간의 제약 때문에 올인을 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그들 중에서도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친구들을 보면 반갑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못 먹어도 고!"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시간을 올인한다는 것보다도 자기 가치관을 올인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을 올인해야지. 조금 힘든 게 있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모든 게 편해진다. 못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지.

서울독립영화제를 쭉 지켜보신 분으로서 한마디.

지금처럼만 해라. 영진위에서 처음 넘어올 때 '독립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받은 거는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개막식엔 사람이 많았는데 일반 상영 때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관객석에 사람을 채울 수 있나, 독립영화는 잘 안 되는 건가란 고민이 있었다. 지금은 매진되는 영화도 많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디포럼과 어떻게 차별화하느냐에 대한 고민 또한 있었는데 영각이(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와 희일이(이송희일 감독, 인디포럼 작가회의 의장)가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한 지 오래됐다. 색깔이 분명하게 다르면 재밌잖아. 영화제 운영 방법도 그렇고, 되도록 비슷한 색깔은 지우고 대조적인 두 독립영화제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상호협력 관계이면서도 분명하게 차별성을 띨 수 있으면 좋겠다.

인터뷰 신미혜



SPECIAL
INTERVIEW

서울독립영화제2004 집행위원특별상, 2005 독불장군상 수상 김경묵 감독

개인적인 살풀이에서 교감의 세계로

그가 〈얼굴 없는 것들〉을 만들었을 당시, 만약 우리가 인터뷰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도, 나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세상에 잔뜩 분노하며 날 것 그대로의 대화를 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10년이 지난 뒤 만났고, 나는 이제 그의 얼굴에서 화가 아닌 다른 무엇을 본다. 부정이 아닌 긍정의 에너지가 거기 깃들어 있었고, 그 에너지가 좋았다.

감독님의 첫 영화, 〈나와 인형놀이〉가 나온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음 영화의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나요?

당시에 홈비디오 카메라로 일상을 기록하듯 찍어 둔 자료들이 있었어요. 아마 19살 때였을 거예요. 다음세대재단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커밍아웃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고 했죠. 그런데 10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그들 얼굴에 모자이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그럴 바에는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그 무렵 다큐멘터리 워크샵을 듣고 있었고, 마지막 과제로 셀프 다큐를 내야 했거든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엮이면서 이 작품으로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죠.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한겨레21'에 주기적으로 글을 쓰기도 했는데, 반복되는 마감 때문인지 즐겁지가 않을 무렵이었고, 글보다는 이미지와 사운드의 투명함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과격한 접근은 언제나 감독님 영화의 화두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감독님 개인에게 영화를 만든다는 행위는 어떤 의미였나요?

〈얼굴 없는 것들〉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그 표현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좀 받았죠. 〈나와 인형놀이〉는 차라리 귀여운 쪽에 속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웃음) 당시에 누군가가 이 영화를 두고 폭탄을 들고 자살하는 심정으로 뛰어드는 영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냥 그런 반응들이 신기했어요. 당시에는 영화와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에 따라가며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분노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요. 뭔가 쌓아 놓은 게 많았어요. 그런 감정들을 살풀이하는 심정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뭔가 제의적인 행위라고 할까. 그런데 〈줄탁동시〉를 만들고 나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 묻곤 해요. 작업은 어떤 식으로든 나와 연관이 있어야 하지만, 그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계속 가면, 자기학대에 가까운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20대 내내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마치 계속 길을 돌아서 가는 느낌이랄까요? 이 길로도 가 봤다가, 저 길로도 가봤다가……. 영화 형식적으로나 영화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나 계속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장편인 〈청계천의 개〉는 형식적으로도, 영화적 공간이나 인물 설정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된 영화인가요?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좋아하는데……. 누군가 말하길 삶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 잠을 자거나 자기를 학대하게 된다는데, 그런 면에 공감을 하면서 잠자는 것에 집중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현실과 꿈이 뒤섞인 느낌, 잘 알고 지내던 트랜스젠더 친구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변형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고 싶었고요. 〈청계천의 개〉는 처음으로 외부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영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해 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인 부대낌에 시달리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작업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고요. 이 영화를 찍는 과정은 그 자체로 영화 형식도 배우고 시스템도 경험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끝냈다는 사실 자체가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본다거나, 현실과 꿈이 서로를 바라본다거나, 나아가 영화의 전반과 후반이 한 몸체의 두 부분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의 활동이 감독님의 영화들을 지탱하는 것 같습니다.

자아 분열이에요.(웃음) 한때는 그게 분열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층적인 면들로 묶여 있고,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는 이런 고민을 관객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고, 아마 그런 시도가 지금 후반작업 중인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일 겁니다. 그간에는 제 영화가 너무 어렵고 형식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죽이지 않으면서도 좀 밝은 정서로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어졌어요. 게다가 20대의 마지막이니까 20대 이야기를 아쉽지 않게 와장창 해 보자 그런 마음이 컸고요. 이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말하자면, 이전 영화들이 줄곧 실내에서 진행되는 자기폐쇄적인 이야기였다면, 그런 갇힌 인물들이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을 보고 싶은 바람이 〈줄탁동시〉의 3부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만약 지난 10년간의 다사다난했던 김경묵의 영화적 지도를 그려 본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예전 영화는 다시 못 보겠어요. 게다가 저는 제 영화를 극장에서 관객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는 편이에요. 부끄러워서……. 과거의 영화들을 지금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동안 영화로 살풀이를 많이 해서…….(웃음)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내면을 그대로 투영했다는 맥락에서 센 영화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흘러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 더 솔직해질 수 있다면, 좀 다른 의미에서 더 강한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노골적인 소재들, 장면들을 쓴 게 그때는 제 정서고 감각이었겠지만, 내가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면 뭔가 다른 강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죠.

영화 작업을 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시나리오를 쓸 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감정 기복도 크고요. 〈줄탁동시〉를 찍을 때부터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게 기쁘고요. 그런 점에서 영화는 저에게 살풀이에서 시작해서 비로소 사람들과의 교감을 느끼게 해 준 세계예요. 영화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영화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웃음)

서울독립영화제가 무척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첫 영화로 관객과 만났고, 〈얼굴 없는 것들〉 같은 영화를 받아 주고 안아 주고 당시 저에게 용기를 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홀로 작업하던 제가 관객과 영화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고요. 제 영화의 첫 걸음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 작업을 계속하는 데 중요한 힘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운 좋게 심사도 할 수 있었는데, 영화를 선정하면서 내가 이 영화제에서 받은 무언가를 누군가와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어요. 지금 작업 중인 영화도 올해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완성이 좀 늦어져서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인터뷰 남다은(영화평론가) | 사진 유수진

-
SPECIAL
INTERVIEW
-

서울독립영화제2011 대상 수상 신아가 감독

더 좋은 영화로 연어의 고향에 돌아오고파

-

처음엔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 감독이니 이번 서울독립영화제 특집 NOW에서 당연히 인터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언니, 알고 보니 독립영화판에서 질기고 강하게 오래오래 버텨 오신 분이었다. 미대 나온 언니가 독립영화 감독이 되기까지의 숱한 고생담과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조곤조곤 물어 보았다.

미술을 전공했다. 조금 의외인데 어떻게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나?

어릴 때 만화를 좋아해서 막연하게 미술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다니던 화실 원장님이 조소를 전공한 분이어서 조소 전공으로 대학에 갔다. 그런데 대학에 가 보니 미술이 적성에 안 맞는 거다. 그때가 한국영화 붐이 막 시작되던 시기여서 나도 자연스럽게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영화감독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막상 마음먹으니 방법을 모르겠더라. 그러다가 대학 4학년 때, 총학생회에서 야외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함께할 사람을 구하기에 찾아갔고, 행사 끝나고도 오리엔테이션 영상 촬영 같은 걸 같이 하면서 독립영화협의회나 노동자뉴스제작단, 서울영상집단 같은 영상 집단들을 알게 됐다. 졸업하면서 독립영화협의회 사무실 옆 '마루'라는 애니메이션 단체도 알게 되었는데, 그 팀 사무실을 함께 쓰던 임유철 감독님과 파업 속보 영상을 찍으러 다녔고 마루 사람들과 애니메이션 작업도 했다. 그러면서 슬슬 인디포럼도 가게 되고, 거기서 조영각 집행위원장님을 알게 돼서 또 문화학교서울도 가게 되고. 문화학교서울 사람들이랑 시나리오도 쓰고 영화도 찍어 보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 그 주변분들 통해서 영화 스태프를 하게 되고, 그때 이석훈 감독님이랑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알게 되고,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영화를 배우고, 만들고, 그렇게 된 거다.

아카데미 시절에 연출한 영화들은 볼 수가 없던데?

필름으로 두 편을 만들었는데, 그중 졸업작품이 아카데미 역대 최악의 영화로 손꼽힐 정도로 엉망이었다. 학교에서 상영할 때 나는 너무 창피해서 안 들어갔는데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웃기려고 만든 거냐고 하더라. 난 심각하게 만든 건데, 하도 어이없어서 실소가 터지는 영화였다나? 평가회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쭉 앉아서 한 분씩 막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엔 나도 좀 반박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분이 "영화를 관둬라, 정말 충심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종지부를 찍으셨고, 결국 낙제를 했다. 당연히 이후 어디 상영된 적도 없고, 나도 굳이 텔레시네를 뜨지 않았고. 사실 이상철 감독도 그만두라고 했었거든. 졸업작품을 보고는 "너는 지금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려 하고 있다. 네 영화 속에 그게 다 나타나고 있다."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상처가 컸다. 하지만 지금은……. 영화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자신의 무의식이나 현재 상태 같은 게 영화 안에 다 드러나는 거다. 그런 걸 누군가 지적해 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아카데미 졸업하고 영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던 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한동안 몸부림치며 술과 함께 어둠 속에서 지냈다. 정말 영화를 관둬야 하나 고민도 했고. 시나리오는 계속 써서 제작지원에 냈는데 계속 떨어지고, 연출부도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기회조차 없고. 그러다 어렵게 연출부에 들어갔는데 도중에 감독이 바뀌면서 그만두게 되기도 했다. 그런 상황이니 생계 문제도 있고 해서 노량진 학원가에서 수업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1년쯤 했다. 그러다가 이석훈 감독님이 〈방과 후 옥상〉(2006) 들어가신다고 해서 감독님을 졸라 연출부 일을 했다. 중간에 이상철 감독이 감독 제안을 받고 들어간 영화사에 같이 들어가서 나는 시나리오 각색을 했었는데 결국 엎어져서 둘 다 나오기도 했고. 다시 이석훈 감독님 〈두 얼굴의 여친〉(2007) 조감독을 했다. 그 사이사이 시나리오는 계속 쓰고 있었다. 〈밍크코트〉는 그 당시 썼던 다른 시나리오의 여러 에피소드 중 하나였는데, 친구가 그 부분을 따로 써 보라고 해서 좀 더 발전시킨 거였다. 그걸로 영진위 제작지원을 받으면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참 길고 힘든 시간 끝에 〈밍크코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상도 많이 받았다.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대상도 받았고. 소감이 어떤가?

처음 부산에서 상을 받을 때는 영화를 보던 중이었는데 문자로 연락이 왔다. 너무 놀라서 그 이후에는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 꿈꾸던 순간이 왔다는 느낌? 하지만 개봉 이후 상을 받을 때는 대부분 수상 사실을 미리 알고 가니까 좀 다른데, 서울독립영화제 때에는 현장에서 알게 되니 정말 놀랐다. 다른 영화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영화가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명되니, '아, 벼락 맞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했다.

상금으로는 뭐 했나? 두 분이 똑같이 나눴나?

우선 배우들이랑 스태프들께 조금씩 나눠 드리고, 우리도 각자 빚 갚고……. 그러고 보니 남는 게 없더라.(웃음) 하지만 둘 다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 같다. 그냥 지금까지 온 것만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신아가에게 서울독립영화제란 무엇인가?

연어의 고향 같은 거?(웃음) 내가 연어고 서울독립영화제가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서울독립영화제에 내 영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예전에 이상철 감독도 나도 각자 영화를 냈다가 다 떨어진 적이 있다. 그래서 첫 장편으로 큰 상을 받은 게 진짜 벼락 맞은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조영각 집행위원장님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거의 오래전부터 아는 분들이고. 누군가가 단편영화를 추천해 달라거나 할 때 항상 서울독립영화제 상영작을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 서울독립영화제 영화들은 사회적인 면과 영화적인 고민을 함께 가지고 가는 작품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기도 하다. 그래서 서울독립영화제 영화들이 좋다. 결국은 더 좋은 영화로 다시 오는 게 서울독립영화제에 보은하는 길이랄까.(웃음)

좋은 영화로 나중에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올해 개막식은 가나?

당연히. 작년에 해외 영화제 참가로 못 가서 너무 아쉬웠다. 일일자원활동가도 할 거고. 이번엔 꼭 마이크 배달할 거다.

인터뷰 허경(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 | 사진 임준형

SPECIAL
INTERVIEW

서울독립영화제 개막 사회 13년차 배우 권해효

젊은 청년의 영화, 그 축제의 공간에 함께하는 기쁨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식에 1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출석한 단골손님이 있다.
12년간의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식 사회자이자, 크고 작은 독립영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힘을 실어 주는 배우 권해효.
이제 독립영화인들에게 '배우'라는 수식어보다 '선배'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진
그가 기억하는, 그리고 추억하는 서울독립영화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요즘 근황이라, 이 인터뷰가 실릴 때쯤에는 잘 놀고 있지 않을까.(웃음) 내년 상반기 개봉할 영화들이랑 지금하고 있는 주말드라마 촬영이 10월 말이면 전부 끝나요. 11월에는 연상호 감독과 함께 작업한 〈사이비〉가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에서의 역할은, 연기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악역이었어요. 주로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은 해 봤지만 애니메이션 더빙 자체가 처음이라 즐거웠어요. 워낙 작품이 좋다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그동안 많은 독립영화인들과 관계를 맺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품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사이비〉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특별히 흥미로운 작업이었어요.

독립영화와의 인연이라면, 조영각 집행위원장과의 만남이 시작이었죠. 아마도 90년대 말 즈음? EBS에서 독립 단편영화들을 방영했던 〈단편영화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어요. 당시 〈단편영화극장〉의 작가로 몇 명의 독립영화인들이 참여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조영각 집행위원장이었죠. 그때 방영되었던 독립영화 감독, 작가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독립영화와의 첫 만남이 시작된 거죠.

서울독립영화제 첫 기억은, 2001년도에 동숭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을 한다고 해서 갔던 게 기억나네요. 그땐 서울독립영화제가 아닌 한국독립단편영화제라는 이름이었어요.

영화제 사회가 벌써 13년째인가요? 사회자 종신 계약 같은 건 아니에요.(웃음) 서울독립영화제가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 독립영화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야말로 잔치 같은 행사잖아요. 때문에 그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2001년부터 제가 상업영화에서 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거의 2009년, 2010년까지 영화를 안 했으니까……. 당시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영화의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만나고 즐겁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라 더욱 특별했죠.

기억에 남는 개막식 에피소드라면, 예전에 장/단편 본선에 올라온 감독들을 소개하고, 소개된 감독들이 일일이 무대에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나 힘들던지……. 다들 무뚝뚝해서 갈수록 우울해지는? 그래서 예전엔 개막식이 길었어요. 그만큼 뻘쭘한 시간도 길고. (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중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사회를 봤던 2001년에 〈송환〉의 김동원 감독님이 포함된 밴드 '검정고무신'의 개막 공연이 생각나네요. 결국 음악적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전설로 사라진 검정고무신 공연!(웃음) 중요한 건 개막작인데, 개막작 상영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의 여운이 계속 이어졌으니까……. 어쩌면 주최 측의 딜레마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네.

그 외에도 12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개막 축하 공연들! 때로는 하자청소년센터의 친구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훌륭한 인디 신의 뮤지션들도 있었고. 장기하와 얼굴들도 있었네요.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킹스턴루디스카, 윈디시티, 이한철……. 그런 인디 뮤지션들을 만나고 공연을 보는 것 자체도 즐거움이었죠. 동시에 민망함이기도 했고……. 이런 호응 없는 관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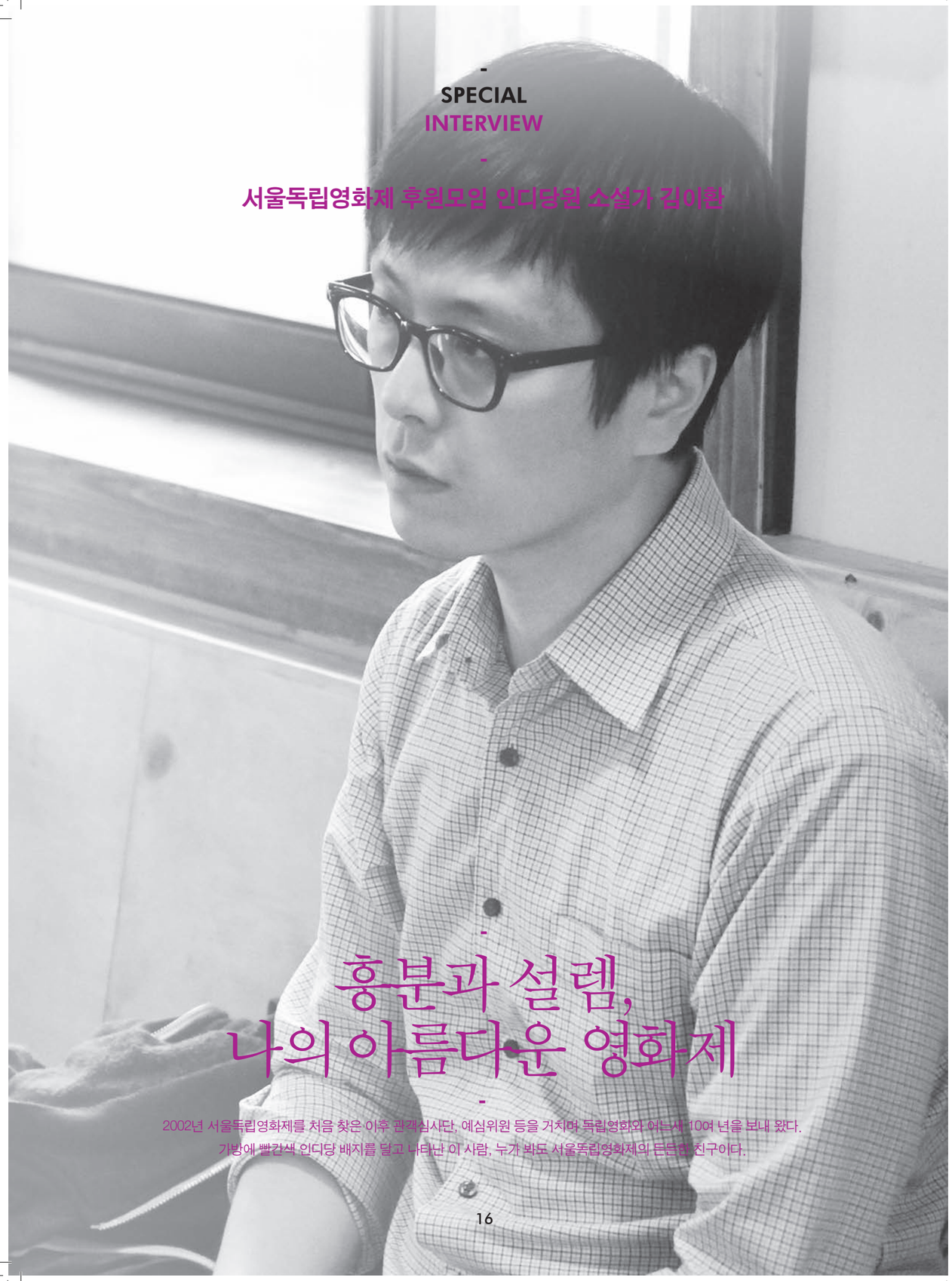
개막식 현장의 변함없이 무뚝뚝한 독립영화인들요?(웃음) 그래도 요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 답답한 건 사실이죠.(웃음) 한국 사회에서 제일 부족한 게 센스 오브 유머! 유머 감각이 없다는 거.(웃음)

영화제를 통해 바라본 독립영화의 가장 큰 변화라면, 글쎄요……. 관객의 관심도가 확실히 많이 늘었죠. 과거엔 독립영화가 일반 관객하고의 접점을 갖는 게 더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철저한 아웃사이더 느낌? 독립영화를 보는 사람들 자체가 일부 식자층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에 독립영화가 한국영화의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 시장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인 건 변함이 없지만요.

벌써 13년이나 되었네요. 매년 하던 고민이 최근에 없어졌어요. 몇 년 전 사회 본 지 10년 되었을 때, '10년 했으니까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또 최근에는 '딱 50까지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년 11월 말, 12월이 되면 웬만한 해외 일정도 안 잡아요. 개인적으로 독립영화가 청년의 정신으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축제의 공간에 내가 함께한다는 것. 또, 기성의 인간으로서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새롭게 영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저를 든든해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이런 인연들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재일조선학교를 돕는 비영리민간단체 '몽당연필'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2002년 즈음, 금강산에서 있었던 6.15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하면서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의 인상이 너무 깊었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일본 동포 사회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졌고 재일조선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2007년에 김명준 감독의 〈우리학교〉가 개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일조선학교들을 방문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을 해 왔죠. 몽당연필은 2011년 일본 지진 났을 때 학교들이 많이 무너져서 긴급하게 뭘 도와 보자 해서 시작했던 모임이에요. 개인들이 모여 뭔가 해 보자 해서, 지금은 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했죠. 기금을 만들어 일본에 보내기도 하고, 공연을 통해 재일조선학교를 알림으로서 지금 세대에 식어 버린 남북통일, 평화, 화해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려 보자 하는 바람도 있고요. 더불어 일본 사회 안에서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속에서 조선학교가 점점 큰 어려움에 처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거죠. 11월 24일에는 첫 번째 후원주점을 열어요. 관심 있는 분들을 홈페이지로. www.mongdang.org

인터뷰 박현지 | 사진제공 권해효



-

SPECIAL

INTERVIEW

-

서울독립영화제 후원모임 인디당원 소설가 김이환

-

흥분과 설렘, 나의 아름다운 영화제

-

2002년 서울독립영화제를 처음 찾은 이후 관객심사단, 예심위원 등을 거치며 독립영화와 어느새 10여 년을 보내 왔다. 가방에 빨간색 인디당 배지를 달고 나타난 이 사람, 누가 봐도 서울독립영화제의 든든한 친구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문학과지성사 홈페이지에 경장편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14주 정도 웹 연재 후 내년에 출간 예정이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판타지 소설 작가 겸 독립영화 저술가'로 소개하고 있다. 오랫동안 블로그에 독립영화 리뷰를 꾸준히 올려 왔다.

요즘은 많이 못 쓰고 있다. 책 마감이 있으면 독립영화 리뷰 쓰기가 힘들다. 출판사에도 미안하고. 최근엔 〈소중한 날의 꿈〉, 〈프리즈마〉 등을 썼다.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심사단으로 첫 발을 들인 후 독립영화와 계속해서 연을 이어 가고 활동 범위도 점차 넓어졌다. 관객심사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2004년부터 관객심사단을 했다. 2002년 우연한 기회에 서울독립영화제 초대권이 생겨 보러 갔다. 그때 〈안다고 말하지 마라〉를 봤는데, 그 작품을 보고 '독립영화 재밌구나' 생각했다. 무슨 상을 받을지 궁금해 폐막식에 갔더니 그해 대상을 받더라. 그러다 2004년에 관객심사단에 지원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없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친구들도 그때 만났다. 영화제 끝나고도 매주 만나 같이 독립영화를 봤다. 독립영화에 꽂힌 거다. 소설가로서 슬럼프가 심할 때였는데 그때 돌파구를 찾은 것 같기도 하다. 독립영화를 보며 커뮤니티도 생기고 영화 리뷰도 쓰게 되고 그걸 좋게 봐 주신 분들께 글 청탁도 받고. 그다음부터 슬럼프도 벗어나 소설가로도 잘되기 시작했다.

관객심사단을 3년간 계속했다.

독립영화가 좋았다. 그때는 전용관도 없어 영화제가 더 귀했고 모든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내가 영화제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상상도 못 했었다. 바깥 활동이 많지 않고 나이도 있고 해서 내가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게 많지 않았는데, 딱 맞는 걸 찾은 것 같았다. 영화제도 좋았고 영화도 좋았고, 행복했다. 독립영화만 생각하며 산 것 같다.

힘들진 않았나.

영화를 많이 봐야 되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 다들 영화를 억지로 보는 악몽을 꿨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눈앞에 영화가 돌아갔다. 40~50편의 영화를 5일 정도 안에 다 봤어야 했고 매일매일 정리하며 깜짝상영작을 정해야 했다. 하지만 깜짝상영을 하며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면 즐거웠다.

원래 글을 썼고 독립영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리뷰를 쓰게 된 건가.

영화 리뷰 쓰는 것을 좋아했다. 원래는 영화평론가가 될 줄 알았다. 소설가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엔 노트에 쓰다가 그걸 블로그에 올리곤 했는데 독립영화가 재밌으니까 독립영화 리뷰를 쓰게 됐다. 원래 영화평론가가 되고 싶었는데 신기하게 어느 순간 바뀌어서 소설가가 되었다.

관객심사단은 정말 딱 맞는 일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 독립영화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 느낌이 나와 잘 맞았다. 영화도 잘 맞고, 사람들도 재밌고 글 쓰는 것도 재밌었다. 글 쓰는 게 취미였는데 그걸 좋게 봐 주니 기뻤다. 계간 〈독립영화〉에도 글을 쓰게 되었는데, 거기에 쓴 〈농가일기〉 글을 권우정 감독님이 좋아해주셔서 DVD에도 실으셨다. 가장 기뻤던 일 중 하나다.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나.

독립영화 대부분 좋아한다. 하지만 완전히 좋아하는 영화는 또 많지 않다. 한두 가지씩은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192-399: 더불어 사는 집 이야기〉다. 그리고 〈농가일기〉, 〈자가당착〉, 〈나는 내가 의천검을 쥔 것처럼〉, 〈아빠가 필요해〉, 〈영재를 기다리며〉, 〈낙원〉, 〈경계도시 2〉 등을 좋아한다.

술술 나온다. 영화를 좋아하는 폭이 넓다.

원래 잡식으로 영화를 좋아한다. 독립영화를 보기 전에도 영화를 좋아했다. 이른바 '비디오키드'였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팀 버튼도 좋고 타르코프스키도 좋고 허우 샤오시엔도 좋고.

2009년엔 예심위원도 맡았다.

제안 받았을 때 정말 기뻤다. 그때 단편 420편 정도를 봤다. 재밌었지만 힘들기도 했다. 독립영화에 대해서 이해도 깊어졌고 배운 것도 많았다. 한 번 더 하자고 하셨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다. 판타지 소설 쓰는 것과 독립영화 둘 다 좋아하는 일인데 같이 병행하기가 힘들다.

예심위원으로서 영화 볼 때는 아무래도 압박감이 있지 않나. 관객심사단을 하며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달랐을 텐데.

작품 수가 많은 것도 힘들었지만 모든 작품을 끝까지 봐야 하다 보니 힘들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작품과 아닌 작품에 대해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일정한 시간 안에 많은 작품을 보다 보니 한동안 질려서 영화를 못 보기도 했다.(웃음)

서울독립영화제 일을 하며 독립영화 쪽에서 편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 관객심사단 할 때부터도 감독님들과 친해지고 싶어 사인도 받고 뒤풀이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다. 영화제 가면 아는 분이 있다는 게 재밌었다.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친구들도 생기고. 2009년엔 예심도 큰일이었고 소설로 상도 받았다. 경험치가 한 단계 올라갔다. 정말 바빴는데 보람찼다.

예심을 하면 관객과의 대화 진행도 맡게 되는데. 그건 어땠나.

지금도 너무 민망한 기억이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듀나가 관객과의 대화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쓴 칼럼을 봤다. 그걸 읽으면서 나는 모더레이터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한심한 모더레이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잊고 싶은 기억이다.(웃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이 있었다. 그만큼 인연이 깊은데, 김이환 작가에게 서울독립영화제는 어떤 의미인가.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 중 하나다. 가면 영화도 좋고 아는 분들 만나서 반갑고, 흥분도 있고 설렘도 있다.

내년이면 40주년이다.

벌써 그렇게 됐나.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 버텨 줘서 다행이고 계속 잘됐으면 좋겠다.

서울독립영화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나.

규모가 많이 커졌지만 오히려 영화제 운영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점점 힘들게 됐다. 잘 버텨 줬으면 좋겠다.

인터뷰 최민아/신미혜 | 사진 김지은

-
SPECIAL
REPORT
-

인디트라이앵글 세 번째 프로젝트 〈서울연애〉

연애로 그려 본 서울의 지도

요즈음 독립영화계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일곱 감독이 모여 옴니버스 영화 〈서울연애〉를 완성했다. 〈도시의 밤〉의 김태용, 〈애드벌룬〉의 이우정, 〈환호성〉의 정재훈, 〈경복〉의 최시형, 〈아누크의 전설: 죽은 자를 위한 노래〉의 정혁기, 〈척추측만〉의 조현철, 〈해운대소녀〉의 이정홍, 이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릴레이하듯 만들어 낸 단편 6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서울'과 '연애'. 서울독립영화제의 제작 지원 프로젝트 인디트라이앵글이 만들어 낸 세 번째 작품 〈서울연애〉를 살짝 들여다본다.

인디트라이앵글의 세 번째 결실인 〈서울연애〉가 대망의 첫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인디트라이앵글은 서울독립영화제가 직접 기획, 제작, 배급까지 총괄하는 사전 제작 지원 프로젝트다. 재기발랄하고 신선한 독립영화를 직접 제작하여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젊은 독립영화인들을 후원하는 데 그 취지를 둔 '착한' 제도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실은 2009년 제작된 〈원 나잇 스탠드〉다. 섹스와 섹슈얼리티라는 주제로 이유림, 민용근, 장훈 감독이 참여했다. 2011년에는 독립영화계의 여배우 전성시대를 이끌어 가는 김꽃비, 서영주, 양은용이 '셀프 카메라'로 기록한 일상을 여과 없이 보여 준 〈나나나 : 여배우 민낯 프로젝트〉(총감독 부지영)가 있었다. 이번 〈서울연애〉는 참여 감독이 두 배로 늘었고, 그만큼 작품의 결도 다채롭다.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연애'하는 청춘 남녀의 이야기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풀려 나간다.

〈서울연애〉의 산파 역할을 한 프로듀서 이난 감독이 구상했던 전체적인 그림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의 협업이었다. 유머러스하거나, 말랑말랑한 정서를 가지고 있거나, 실험적인 영화를 해 왔던 사람이나, 전통적인 내러티브에 강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판에서 어우러지며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길 바랐던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재훈 감독 또한 "영화들이 한데 모이면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했고, "서로 다른 기운들이 한 영화 속에서 대화를 나누듯"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다고 한다. 〈서울연애〉는 6개의 서로 다른 조미료가 어우러져 진한 맛을 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섯 조각의 모자이크가 만들어지는 현장

총 6팀의 감독들에게 각각 주어진 초기 제작비는 300만 원. 3회차에서 5회차 촬영으로 15분 내외의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 3월 말 김태용 감독의 〈춘곤증〉 촬영을 시작으로, 5월에는 이우정 감독이 〈서울생활〉을, 6월엔 정재훈 감독이 〈상냥한 쪽으로〉를 촬영했고, 8월엔 정혁기, 조현철 감독의 〈뎀프시롤〉과 최시형 감독의 〈영시〉 촬영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정홍 감독이 추석 연휴 중에 촬영을 진행했다. 9월 21일 토요일 오후, 그 현장을 살짝 엿보기 위해서 서울 한남동의 한 일식 주점을 찾았다. 촬영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이정홍 감독은 조용조용히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배우들은 숨죽인 채 감독의 말에 귀 기울였고, 카메라는 "액션!"이라는 소리가 있기 전까지는 휴식을 가졌고, 기다림에 지쳐 있던 보조 출연자들도 현장 공기에 적응한 듯 의자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날 촬영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된 강행군이었다.

당일 촬영 분은 주점의 알바생 지홍이 연애 문제로 속을 끓이다가 주방장 민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뜸을 들이는 장면들이었다. 말은 적고 액션은 작았다. 이정홍 감독은 차분하게 디테일을 챙겼다. 야채와 간장, 그릇과 젓가락이 놓이는 위치까지도 직접 정했다.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야 할 보조 출연자에게는 "문을 천천히 열지 말고, 세게 열어 주세요. 그리고 뒤돌아서 이렇게 말해 주시면 돼요."라고 자분자분하게 말했다.

이정홍 감독은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격화하는 방법을 고심하는 듯했다. 전작인 〈반달곰〉의 주인공이 피시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정서적 애착을 보이던 것처럼, 이번 작품에도 3평 남짓한 주점 주방에서 흐르는 감정의 결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 서울의 어느 주점에서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는, 그렇게 〈서울연애〉라는 커다란 도화지에 한 조각의 퍼즐로 들어가게 된다.

집-직장-산, 서울의 트라이앵글

〈서울연애〉는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방'이 두드러진 에피소드가 있다. 최시형 감독의 〈영시〉는 룸메이트였던 남녀가 연인으로 발전한다는 모티브만으로 진행되는 미니멀한 영화다. 감독은 평소 서울이 "소음이 많고 계속 공사 중"이라서, "움직임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영화에서 주 공간이 되는 '방'은 세상을 가득 채우는 고밀도의 소음보다는 두 남녀가 건네는 고백의 밀도로 채워진다. 이우정 감독의 〈서울생활〉은 자취방을 무대로 하여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의 감정을 포착한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남자는 여자 친구가 이사 갈 채비를 하는데도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주기적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불안한 주거 환경이 만남과 이별로 점철되는 연애 패턴과 유비 관계를 맺고 있다.

직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에피소드도 있다. 이정홍 감독의 〈군인과 표범〉과 김태용 감독의 〈춘곤증〉은 젊은 청년들이 노동하는 일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자상가에서 일하는 18살 남자와 32살 여자의 연애를 다룬 〈춘곤증〉을 두고, 김태용 감독은 "솔직하고 뻔뻔한 성장 영화의 외피"를 두른 "여리고 나약한 치정 멜로"라고 소개한다. 전자상가, 여관, 모텔, 아파트 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들은 '뻔한' 서울의 모습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소외된 인물들의 본성이 살아 움직이는 무대다. 감독은 "로우 예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개발된 신도시 이면의 눅눅하고 나른한 도심 지하에서 치열하게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이 있다. 정혁기, 조현철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한 〈뎀프시롤〉은 펀치드렁크에 걸려 뇌 손상을 입은 한 복싱 선수가 미완의 관소리 복싱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내용이다. 구성진 관소리와 아웃복싱의 현란한 몸동작이 서울 도심과 서울 근교의 산을 배경으로 하모니를 이루어 낸다. 정재훈 감독의 〈상냥한 쪽으로〉는 등산을 하던 두 남녀의 감정선이 갑작스럽게 뒤틀리는 상황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서울연애〉는 이처럼 닮아 있으면서도 각자의 개성으로 똘똘 뭉친 단편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로 거듭나는 작품이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의 어우러짐이 전체가 되는 영화. 7명의 감독과 6편의 영화가 그려 내는 일종의 서울의 연애 지도. 보는 이에게 스스로의 연애 좌표를 가늠해 볼 기회를 제공할 이 영화는, 서울독립영화제2013에서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취재/사진 이도훈

이수진의 〈한공주〉와 안선경의 〈파스카〉

세 상 과 싸우는 이들을 보듬어 안을 때

어디엔가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것 같지만, 최대한 단단하고 담담하게 세상과 대면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소녀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한공주. 무슨 사연에서인지 전학을 와서 낯선 타인의 집에 얹혀사는 그녀는 세상의 접근에 한발 물러나면서도 그 세상의 안을 궁금해 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우리는 얼마간 소녀의 내밀한 구석을 지켜본 뒤에야 그녀가 집단 성폭행의 피해자였으며, 그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소녀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과거는 악몽처럼 현재로 자꾸만 돌아오고 세상에 다시 한발 내딛으려는 소녀의 발목을 붙잡는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오늘 비전 부문에서 상영된 〈한공주〉(이수진)의 이야기다.

마흔 살의 여자와 열아홉 살의 남자가 사랑을 한다. 여자는 시나리오 작가이고 남자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소년이다. 둘은 가난하지만 어린 고양이들을 돌보며 함께 산다. 그러나 가난보다 힘겨운 것은 이들의 사랑을 병적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폭력적인 시선이다. 여자는 임신을 하고 남자는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갇힌다. 역시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에서 상영된 〈파스카〉(안선경)의 이야기다.

전혀 다른 내용의 두 영화를 여기서 함께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있다. 두 영화는 지금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아니 마주하는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있고, 절망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신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 내는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테면 두 영화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인물을 가학하는 데 몰두하는 대신, 그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가려는 인물들의 결을 보여 주기 위해 애쓴다. 우리는 한공주를 보는 동안, 그녀가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마흔 살 여자와 열아홉 살 남자가 사랑하는 순간들을 보는 동안, 이들의 사랑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들의 관계를 판단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한공주〉와 〈파스카〉는 사건이나 통념이나 편견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들의 숨소리를 듣고 보고 쓰다듬으며 먼저 그 모습 자체로서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영화들이다. 편견 어린 사회의 상투적인 반응에 상투적인 내지름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살아남아 흔들리며 자라나는 구체적인 감정과 삶에 대한 아주 작은 기대를 놓지 않고 건디는 것. 두 영화의 울림은 거기 있다. 작위적인 상황이나 설정의 유혹을 최대한 멀리하고 그런 구체들로 일견 극단적인 이야기를 끌어안은 점은 두 영화의 따뜻한 성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의 어떤 순간들에서 거둘 수 없었던 불편함을 여기서 말하려고 한다. 그건 영화가 극단의 소재를 문제의식으로 삼을 때 줄곧 빠지는 함정으로부터 이 두 영화들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이다. 한공주가 겪었던 과거의 사건이 플래시백으로 현재에 끼어들 때, 과거를 현재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인과관계로 단순화시키지 않으려는 형식적인 노련함은 〈한공주〉의 좋은 점이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가해자 학부모들을 다시 등장시키거나 당시의 기록 동영상을 영화에 삽입하는 대목들의 방식, 그러니까 영화 전반의 톤과 달리 영화가 지금 여기서 분노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무언가를 느끼라고 요청하는 장면들에서 영화는 아슬아슬해진다. 그때, 영화는 한공주라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소재에, 혹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더 감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파스카〉에도 그런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낙태한 아이, 그러니까 태아의 시신에 카메라를 정면으로 두고 한참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감독의 말을 따른다면, 이 장면의 충격과 외설성은 '이걸 잘 보고 생각하라'는 감독의 직설적이고 절박한 전언이다. 두 영화의 이런 장면들은 세상의 무언가에 대한 영화의 분노를 보여 주고 우리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허나 안타깝게도 이 순간들은 살아 있는 개별 인물들의 생생함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영화의 경직된 메시지, 더 가혹하게 말하면 야망으로 읽힌다는 게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인물들을 통해 깊고 자연스럽게 감흥하게 하던 영화가 특정 장면의 설정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의 영화적 한계에 대해 생각하며 이렇게 묻고 싶다. 때로는 보여 주지 않는 결단이 가장 강력한 영화적 발언일 수도 있지 않은가.

남다은(영화평론가)

정윤석의 〈논픽션 다이어리〉

그 늘 속 침묵의 언어로 던지는 질문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우연이었다.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난 후, 〈논픽션 다이어리〉를 보았다. '서울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은 〈응답하라 1994〉의 1화는, 지방 출신의 한 청년이 처음 와 본 서울 거리에서 겪게 되는 당황스러운 일화를 코믹하게 전해 주고 있었다. 〈논픽션 다이어리〉는, 90년대에 본격화된 소비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농촌 출신 청년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을 '지존파 사건'의 사회적 배경으로 제시하는 한 전문가 인터뷰를 들려주며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90년대 초반을 X세대라 불리는 신인류의 탄생 시기로 낭만적으로 추억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시기를 너무 충격적이어서 몸서리쳤던 한 사건이 발생했던 때로 기억하고 있었다.

돌이켜 보니, 이상한 일이다. 94년에 발생한 지존파 사건은, 그 자체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쉽게 잊힐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후 매스미디어를 통해 반복해서 환기되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90년대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다. 말하자면, 나에게 지존파 사건에 대한 기억과 90년대에 대한 기억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일종의 '해리성 기억장애'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기억의 착시 현상은, 단지 나만의 것이었을까? 최근 영화와 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90년대에 대한 낭만적 추억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논픽션 다이어리〉는, 90년대에 대한 우리의 기억 속에 누락되어 있던 지존파 사건을 불러들임으로써 90년대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다. 물론 그 질문은 단지 과거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현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논픽션 다이어리〉는 90년대의 수많은 사건 사고를 담은 기록 영상들의 몽타주를 통해서 두 얼굴을 지닌 그 시대에 대한 명료한 초상을 그려 내고 있는 영화다. 〈논픽션 다이어리〉가 제시하는 '다이어리'(주요 사건일지)에 따르면, 90년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93년 2월부터 98년 2월까지의 소위 '문민정부' 시대)는 지존파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한 시기이고, 지존파에 대해서는 검거 후 불과 1년여 후에 사형이 집행된 반면,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의 책임자들에게는 관대한 법 집행이 실행되었던 시대다. 또는,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 속에 전두환, 노태우에게는 특별사면이 내려진 반면, 도덕성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속에 지존파를 포함한 총 57명의 '흉악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시대다. 또한 '신한국' 건설 및 '세계화'라는 당당한 포부를 내세우며 출발했지만, IMF 사태로 초라하게 막을 내린 시대다.

하지만 〈논픽션 다이어리〉의 영화적 의의는, 결과적으로 그려 낸 이 명료한 90년대에 대한 초상에 있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었던 지존파 사건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 보고자 했던 출발점 또는 그 진정한 예술적 의지에 있다. 쉽게 재현될 수 없는 사건이 있다. 지존파 사건 역시 그런 사건 중의 하나다. 그것은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 '조직성'과 '엽기성' 때문에 충격이었던 사건이다. 당대의 매스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당혹감을 도덕성 담론(인간성 회복 및 법질서 확립)으로 이겨 내려고 요란하게 애쓰고 있었고, 그 이후 반복된 매스컴의 사후적 재현도 단지 그 요란함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논픽션 다이어리〉는 이 요란한 담론에 조용한 증언을 맞세운다. 지존파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증인들(담당 형사, 교도관, 상담 목사 및 수녀)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오로지 자막(침묵의 언어)으로만 들을 수 있는 지존파 멤버들의 '법정 진술'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어두운 그늘, 그 그늘 속의 침묵의 언어, 그 그늘과 침묵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양가성, 그 모든 것 안에는 〈논픽션 다이어리〉가 던지고자 하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이 담겨 있다.

P.S. 감독 정윤석은 〈별들의 고향〉(2010)의 연출의 변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소비했던 옛 '유령들'의 곡소리가 구슬펐던 과거의 진혼의 곡이 아닌, 다가올 망자를 위한 곡이었음을 깨닫는다." 〈논픽션 다이어리〉 또한 단순히 과거의 망자(지존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다가올 망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일 것이다.

변성찬(영화평론가)

원승환의 **쓴소리**

독립영화 상영, 그렇게나 많다고?

개봉이나 영화제 상영 외에도 많은 독립영화가 'ㅇㅇ상영회'라는 형태로 상영된다. 2013년 10월만 하더라도 2일 인디애니씨앗터에서 6편의 단편애니메이션이 상영됐고, 같은 날 독립영화발표회를 통해 전현구 감독 단편 3편이 상영됐다. 독립영화발표회는 이밖에도 9일엔 〈시선들〉 등 6편의 단편영화를, 16일엔 장편영화 〈꾸구리〉를, 23일엔 〈괄당 사람들〉을 상영했다. 10일엔 재미다큐신작전에서 〈괄당 사람들〉이, 역시 같은 날 인디다큐페스티발 정기상영회에서 〈잔인한 내림-遺傳〉이 상영됐다. 11일엔 금요단편극장-인디스토리 쇼케이스에서 〈봄〉 등 3편의 단편영화가, 같은 날 서울시 좋은영화감상회를 통해 시민청 바스락홀 등 5개소에서 〈주리〉 등 5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됐다. 16일엔 독립영화의 재발견에서 김수현, 윤모 감독의 단편 2편이, 19일엔 독립애니 정기상영으로 인디애니페스트2013 수상작 7편이, 22일엔 독립영화 쇼케이스에서 〈주님의 학교〉가, 23일엔 인다다큐 시간여행을 통해 〈농가일기〉가, 30일엔 인디포럼 월례비행을 통해 〈파스카〉, 31일엔 탐앤탐스 인디스카이데이라는 이름으로 〈링〉이 상영됐다.

정기적인 상영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획전도 종종 개최된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은평영화제에서 〈마이 플레이스〉 등 4편의 독립영화가 상영됐고,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인디다큐페스티발 순회상영회 다큐로路를 통해 〈주님의 학교〉 등 10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15일부터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의 일주일 개봉극장을 통해 〈섹스킹〉 등 9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정기상영회나 기획전이 서울에서만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다큐멘터리 〈자, 이제 댄스타임〉 기획상영회는 2일 인천, 4일 광주, 24일 부산, 30일 익산에서 개최됐다. 인천에서는 19일 인천독립영화 정기상영을 통해 5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됐고, 성남에서는 18, 19일 양일간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2013을 통해 5편의 영화가, 부천에서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인디다큐페스티발 부천 순회상영회를 통해 〈주님의 학교〉 등 4편이 상영됐다.

정기상영회나 기획전만 있는 것도 아니다. 개봉한 독립영화의 공동체 상영도 개최된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1일 서산, 7일 서울 종로구, 17일 수원, 18일 서울 마포구, 23일은 서울 관악구에서 상영됐고, 〈그리고 싶은 것〉은 2일 숭실대, 3일 고양과 제주, 19일 수원, 24일 부천, 26일 김해, 28일 청주 등지에서 상영됐다. 〈벌거숭이〉도 19일 해방촌 카페빈에서 공동체 상영을 개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제비다방의 제비극장, 스페이스 노아의 모극장, 씨클라우드의 c4cine, 원주의 다큐가 좋다, 지역 미디어센터 동시상영 등등 많은 상영회와 기획전 등이 전국 여러 곳에서 열렸거나 열리고 있다.

어떠신가? 기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꽤 많은 독립영화 상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상영회나 기획전은 영화제들과는 달리 별도의 홍보 예산도 없고 언론에서 소개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관객이 직접 각 상영회를 주최/상영하는 단체나 공간의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메일링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즐겨찾기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입문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큰 관심을 가진 관객이라 하더라도 상영회 개최 여부를 적절한 시기에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정보를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러해서 상영마다 기대보다 관객이 적은 것은 아닐까?

상영회를 개최하는 것만큼이나 관객들에게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꾸준히 관객이 들어야 상영회가 지속될 수 있고 더 많은 상영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독립영화 관객이 확대될 수 있다. 흩어져 있는 정기상영회, 기획전, 개봉영화 공동체 상영 정보 등을 모아서 알아보기 쉽게 재가공하여 관객에게 제공해 보면 어떨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정보는 모을수록 더 큰 힘을 갖는다. 정보를 찾기가 쉬워야 관심을 가진 더 많은 관객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소통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시와 **뜬구름**

따뜻함에 마음 흔들리는, 거기 그 마을에 가요

부산에 내려가는 기차 안입니다. 창밖에는 벌써 벼가 노랗게 익었어요. 앗, '벌써'라는 말은 틀렸군요. 햅쌀을 차례 상에 올린다는 추석이 지난 지가 벌써 한참인데. 추석 때 타고 오가던 기차에서는 무얼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요, 다만 오늘 저 노란 벼가 신기할 뿐입니다.

부산은 지난 4월에 오고 올해 들어 두 번째에요. 4월에는 단독 공연 '시와, 커피'를 하러 왔었답니다. 장소는 '금빛물고기'라는 금정구 장전동의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카페였고요. 부산의 다른 어떤 관광지 못지않게 지금 살고 있는 금정구가 아름답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을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마을기업랍니다. 금빛 우물이 있는 금정산, 금정산이 있는 금정구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하는 마을 투어를 진행할 기점이 필요해 카페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해요.

공연할 장소에 도착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준비를 하자니 뭉클했습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했어요. 그 애정이란 삶에 대해 긍정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 살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낯선 제 노래에도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좋은 기운을 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대전. 화려한 신도심이 생긴 대전의 옛 번화가는 대흥동인데요. 그곳에 사는 젊은이들이 마음을 모아 멋진 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대흥동립만세'라는 축제를 열어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판을 기획하고. 오래됐지만 나름의 멋을 가진 골목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뮤지션을 초대해 공연을 열고, 사람들에게 낡은 것일지라도 간직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요. 이 역시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벌인 일. 따뜻한 마음이란 만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들은 활기차기까지 해요.

지난해 겨울에는 대구에서도 노래할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는 작은 카페 주인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모여서 커피 원산지 투어를 다녀왔대요. 그곳에서 원산지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게 된 거죠. 이 모임의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그곳과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짓는 일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중 어느 가게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판매한 커피 값은 모두 놀이터를 짓는 일에 기부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가게는 저를 초대해 공연을 열어 후원금을 모금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게의 마음과 돈이 모여 지난겨울에 벌써 놀이터 하나를 완성했다고 들었어요. 이분들의 꿈은 그곳에 학교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주에도 갔었어요. 한옥마을의 어느 작은 카페에서의 공연이었는데요. 그 공연을 기획한 분이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길을 안내받을 겸 얼마간 함께 걸었는데, 그때 저는 또 뭉클. 세상에. 걸어가는 길에 있는 가게, 그 시간까지 열려 있는 가게를 지키는 분들과 안부를 묻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거 있죠. 그 광경이 또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이웃과 정답게 지내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애정을 갖고 서로 곁을 내주며 사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전까지는 서울의 성미산마을만 알고 있었는데, 이른바 '마을'은 부산에도, 대전에도, 대구에도, 전주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일이지요. 이분들을 만난 이후로 저는 지방에서의 공연이 더 반갑게 느껴져요. 노래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는 건 곧 여행이고, 더불어 그곳에서 만난 온기에 힘을 얻으니까요. 작은 마음을 모아 정성 들여 만든 시간은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지금은 부산을 향하고 있지만 내일은 대구에 갑니다. 지난겨울에 공연했던 그 카페에 다시 가서 노래하기로 했거든요. 이제는 언니라고 부르는 카페 사장님과 언니의 친구들을 어서 만나고 싶어요, 그들이 얘기 나누는 자리에 같이 둘러앉아 크게 웃고 싶어요.

시와
노래하고, 노래를 만든다. 노래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음반을 내 보니 알겠다. 글도 거울이다. 책도 내 본 덕에 알게 되었다. 2013년 하반기는 새로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음악 작업과 함께 보낼 예정.

EDITORIAL

-

서울독립영화제, 그리고 사람들

해마다 서울독립영화제 개막 소식이 들리면 "한 해가 다 갔구나……" 싶어진다는 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서울독립영화제의 뿌리를 더듬어 보면 1975년 첫발을 뗀 한국청소년영화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후 1998년까지 금관상영화제, 금관단편영화제, 금관청소년영화제, 한국청소년단편영화제로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그때까지는 출품된 영화들을 심사하여 시상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영화제 운영을 함께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지요. 첫 3년 동안은 한국독립단편영화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2002년부터 서울독립영화제라는 이름으로, 한 해 동안 만들어진 독립영화들을 모아 상영하면서 관객들과 만나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겁니다.

2013년 달력을 한 장 남기고, 지난 15년간 서울독립영화제와 함께 한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우선 영화제를 만들어 가는 집행위원들의 고민을 들어 봤고, 1999년 〈현대인〉으로 첫 번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류승완 감독부터, 2003년 〈송환〉으로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한 김동원 감독, 2004년 〈나와 인형놀이〉로 집행위원특별상을, 2005년에는 〈얼굴 없는 것들〉로 독불장군상을 연달아 수상한 김경묵 감독, 2011년 〈밍크코트〉로 대상을 수상한 신아가 감독, 그리고 13년째 서울독립영화제 개막 사회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 관객심사단으로 시작해 후원모임 인디당의 일원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소설가 김이환까지, 그들이 영화제와 맺어 온 질긴 인연과 한결같이 두터운 애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올해의 개막작이 될 인디트라이앵글 세 번째 프로젝트 〈서울연애〉의 젊은 감독들은 영화제의 새로운 피가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독립영화제2013에서 만나게 될 감독들과 관객들이 또 다른 서울독립영화제 이야기를 만들고 쌓아 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극장에서 뵙지요.

김은아

NO.2
2013.11.21

발행처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책임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편집주간 **조영각** 기획총괄 **김동현**
편집장 **김은아** 편집위원 **김유리, 김지은, 박현지, 신미혜, 이도훈, 최민아** 편집자문 **장병원**
사진 **김설우 유수진 임준형** 디자인 **이혜경** 인쇄 **노란상자**
-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공덕동 82-9) 2층 (121-800)**
전화 **02-362-9513, 02-334-3166** 팩스 **02-363-3154** 이메일 **prog@siff.or.kr**
홈페이지 **www.siff.or.kr I http://indienow.kr/**
-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

서울독립영화제 후원모임 인디당

세상을 향한 이로운 毒, 독립영화!
독립영화를 단단하게 지키고 싶다면, 인디당원이 되세요.

후원 종류 CMS 정기후원 / 일시후원 / 현물・재능후원
후원 방법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www.siff.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801-666717 (예금주 서울독립영화제)
후원 혜택 - 인디당 배지를 드립니다.
- 서울독립영화제 초대권 및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를 우송해 드립니다.
- 후원금은 세액공제 됩니다.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서울아트시네마
스폰지하우스
씨네코드 선재
씨네큐브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아트나인
아트하우스 모모
인디스페이스
인디플러스
필름포럼
한국영상자료원
KT&G 상상마당 시네마
KU시네미트랩
KU씨네마테크
미디액트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땡스북스 홍대점
책방 이음
책방 풀무질
후마니타스 책다방
몽소
물고기
상수동까페
성영태 커피 하우스
아디스아바바
유어마인드
이리카페
카페 공드리
경기/인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강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대전/충남/충북
대전아트시네마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광주/전남
광주극장
전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지프떼끄)
대구/경북
동성아트홀
부산/경남
국도예술관
영화의전당
프롬더북스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구독 방법

구독료 1호당 1,000원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101-666706 (예금주 서울독립영화제)
신청 및 문의 prog@siff.or.kr 02-362-9513
위의 계좌로 구독료를 입금한 후 이메일(prog@siff.or.kr) 또는
전화(02-362-9513)로 받아 보실 분의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